

하, 하, 夏~

휴식과 수행으로 웃자

여름 특별기획

처음으로 등지를 떠나는 새처럼

살아오는 동안 하루도 새벽이 없는 날은 없었지만
매일 새벽마다 깨어 있지 못했다.
깨어 있다는 것, 깨어난다는 것의 승고함은
새벽에 깨어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

山寺.
별빛에 촉촉이 젖은 고요를 뚫고 실눈 뜨는
산사의 새벽에 나도 함께 깨어난다.

새로운 새벽이다.

새벽이 새로운 것은 새 날을 새롭게 맞이하는
기원과도 같은 설렘이 있기 때문.

살아오는 동안 한순간도 나를 떠나 본적 없지만
새벽 숲길을 걸으며 나를 떠난 곳에서 나를 바라본다.
내 안에서 꿈틀대던 그 많은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들
새벽 숲길을 걸으며 조금씩 밖으로 떠나보낸다.

별 것도 아닌 것에 왜 그리 속 끓이고 살았던가?

한발 한발 내딛는 새벽 숲길은 비워냄의 길이다.
나를 비워 내며 나를 바라보는 업경대(業鏡臺)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와 어떻게 다른가?
내일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에게 나를 묻는 순간 나는
온전한 나를 만난다.

나를 비운 곳에서 나를 만남으로써
어제와는 다른 내가 되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한다.

산사의 새벽 숲길을 걷듯 하루하루를 걸으리라.
별빛이 물러가듯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 내리라.
채우기에 바빴던 나의 등지를 비우고 날아가리라.

처음으로 등지를 떠나는 새처럼...

글=임연태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대구 능인고 교사들의 전등사 불교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장면.
관련기사 22면

